

서수영 개인전 <My Treasure> 보도자료

전시기간 2022.11.07(월) - 2022.12.08(목)
전시장소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팔판길23)
참여작가 서수영
전시명 <My Treasure>



보물의 정원_Timenessless 2022110, 2022, 수제장지 위에 금박24k 합금박 석채 먹, 160x90cm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HELEN JAE

서울시 종로구 팔판길23
www.helenandjae.com

문의 이현정
+82 2 722 0526
info@helenandjae.com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와 세부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꼭 명기부탁드립니다.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 서수영 개인전 < My Treasure > 展 개최.

서수영 작가는 22년간의(2000~2022) 한국 전통미술을 오마주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세가지 소주제로 산수화, 인물화, 정물화로 나뉘어진 이번 전시는 헬렌앤제이갤러리 서울에서 2022년 11월 07일에서 12월 08일까지 열린다.



보물의 정원_Timelessness 2022115, 2022, 수제장지 위에 금박24k 합금박 석채 먹, 75 x75cm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작가의 최근작 <보물의 정원_Timelessness>시리즈는 달 향아리를 소재로 하여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수영작가는 종이 부조 작업 위에 수묵과 채색이 어우러진다 색다른 구성과 표현력을 배가시킨 작가만의 강렬한 색채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축적된 작가의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응용하는 시도는 늘 새로운 시각적 자극으로 다가온다.

독창성의 상징인 태극기의 S자 곡선으로 화면을 나누고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오방색의 무작위적인 점들이 환상적으로 느껴진다. 그 가운데에 국보로 지정된 향아리를 백자 향아리 속에 그려 넣어 새로운 세대의 감성으로 재구성한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선조들이 이뤄낸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꺼내 놓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정체성을 갖고 재탄생될 때 진정한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작가는 말한다.

달향아리의 순백의 미와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자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이고 매력적인 볼륨감과 질감, 형태, 공간감을 가졌고 특히 약간 비틀어지고 변형된 상태가 전체의 조형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을 갖게 한다. 달향아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또한 구상 회화로 그 의미가 있겠지만 작가는 자유롭게 달향아리 안에 국보 향아리와 한국의 상징물을 품어 선조들의 이야기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어져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한국의 청화백자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백자 자체의 예술성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도 청화백자 특유의 화려함을 함께 간직할 수 있게 세심히 만들어져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자 특유의 담백한 청백색 유약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의 청화백자를 더 고품가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이 매력인 한국의 국보 향아리의 조형미를 주제로 그리게 되었다고한다.



황실의 품위 2013, 2013, 수제장지 위에 금박24K 석채 먹, 150×120cm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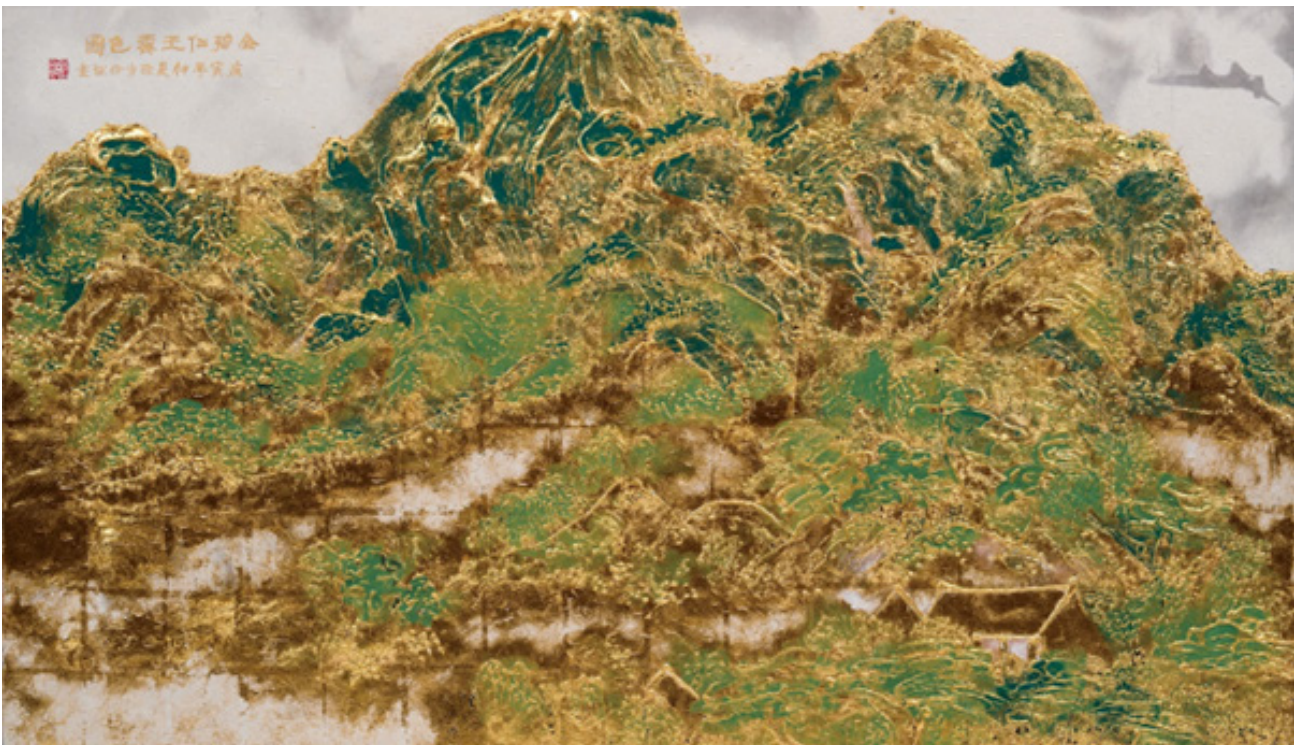
<황실의 품위_그 영원한 아름다움> 황실의 인물화시리즈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작가는 기품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품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무거운 대례복의 형식을 갖춘 왕비의 평온한 표정에서 도덕과 관습을 초월한 품위가 전해진다.

<한국미술을 오마주하다>시리즈는 한국의 전통미술(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일월오봉도, 책가도)를 오마주하였다. 서수영작가의 2010금벽금강전도(金壁金剛全圖)는 조선 산수화의 이미지 차용하여 돌가루 반죽 위에 금박을 입힌 3차원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수제장지 위에 금박을 입혀 화면의 깊은 밀도와 석채로 표현한 채색의 중첩으로 회화적인 분위기와 종이표면 질감의 변화로 인한 또 다른 현대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즉 옛 것의 소중함과 아울러 새것의 필요성을 동시에 실현한 작품이다.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문화로 발돋움하는 현재,

30여 년간의 한국 전통회화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하여 활동해온 서수영 작가의 행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의 현대와 과거의 시공간을 이어가는 무한한 상상을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

세계가 하나되어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21세기, 그림 속에 스며든 한국의 보물을 만나 한국 회화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10 금벽인왕제색도(金壁仁王霧色圖), 2010, 수제장지 위에 금박24K 금니24K 석채 먹, 102×130cm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서수영 (b.1972~)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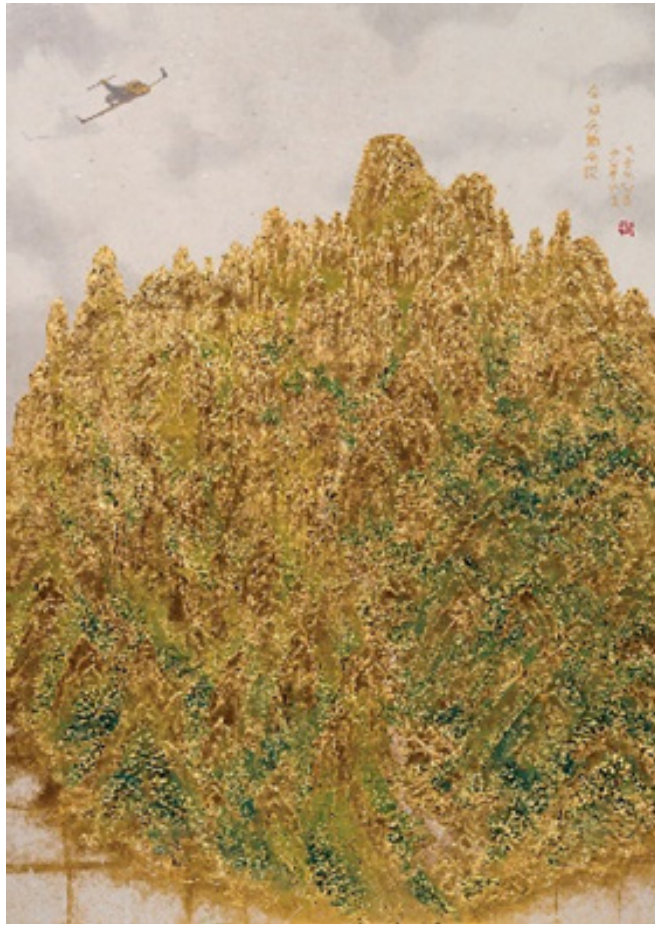
Art gate(USA), Galerie Visconti(France), Longsun art gallery(China),

성곡미술관, 한백원미술관, 영은미술관을 비롯해 30여회의 국내외 개인전과 200여회의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또한 KIAF SEOUL, 2012 Citizen Art Shanghai(China), Hong Kong Art Fair (Hong Kong), SCOPE (UK) Art Show 등 30회 이상의 국내외 아트페어에도 참가했다.

2015년도에 문화예술융성사업으로 진행된 근대 이후 제작된 배채기법 작업 중

가장 큰 대작을 완성하여 한국 미감의 정수를 새로운 세대의 감성으로 보여주었다. 단행본 『그림 속에 나타난 금 이야기』를 저술하였고, 경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우수창작작가에 선정, 안건청년작가 대상, 최우수 논문상, 커리어 리더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영은미술관, 한국미술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었고,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10 금벽금강전도 (金壁金剛全圖), 2022, Archival pigment paper print 7/30, 금박24k
 Hand embellished 에디션, 130×94.5cm
 Courtesy of Helenandjae gallery Seoul © 서수영

HELEN JAE

헬렌앤제이 갤러리에서는 2022년 5월 26일 개관전을 시작으로 국내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해외 작가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 국내외 원활한 교류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스캇앤제이 갤러리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해외로 뻗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 전역의 장래성 있는 작가 발굴과 함께 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해외 작가들이 국내에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선보여 국내외 예술적 교류에 중요한 통로를 마련하여 국내 미술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1:00 - 18:00 (월요일 휴무)
 서울시 종로구 팔판길 23
 02-722-0526
www.helenandjae.com